

#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for the Academia of International Trade

김 재 식 \*\* Jai-Sik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과 현황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모형 및 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 국문초록

무역학 분야의 신규박사 공급과 관련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채용수요자가 기대하는 질적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자원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역학 전공교수를 대상으로 양적연구인 설문조사와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표적집단면접을 통해서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발전대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무역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일제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소수의 대학에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철저한 교육훈련과 검증을 거쳐서 학위를 수여하고, 직장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는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의 질적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역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 확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6494)

\*\* 서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대를 위해 무역관련 학과에서 신입교원 채용 시 우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요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무역학, 학문후속세대, 무역교육, 박사과정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무역관련 학과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공급자인 동시에 무역학을 교육하고 연구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주요 수요자이기도 하다.

무역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못지않게, 무역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무역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배출현황과 교원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만,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국회전자도서관 DB를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의 전공에 ‘무역’, ‘통상’, ‘국제상학’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를 검색한 결과, 총 641건이 발견되어서 연평균 약 106명이 신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한편,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연구자정보’에 무역학을 주전공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임교원이 334명, 비전임교원이 108명, 기타 연구원 등이 55명으로 파악되었다.

그 동안 무역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무역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무역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부 연구자들이 주로 학부에서의 무역학 교육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무역학이 도입된 초창기부터 근래까지 무역학과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무역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무역학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노택환, 2003; 라공우, 2011)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최근에는 무역학 교육의 방법론(이호형·김학민, 2011), 무역학

1) 조사대상기간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1월말까지이며, 키워드가 중복 포함된 5건은 제외하였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정홍주, 2011), 무역학 교육과 관련한 국제비교(김원배·유병부, 2008; 강홍중, 2011) 등과 같은 연구주제로 관심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무역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무역교육의 체계정립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문제는 무역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자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원에 대한 구인동향을 분석한 연구(김재식, 2012)가 유일하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도 무역학 분야의 교수요원에 대한 수요는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학원에서만도 매년 100명 정도의 무역학 분야 신규박사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학문후속세대의 양적공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요자가 기대하는 질적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교육훈련과정을 거친 학문후속세대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김재식, 2012).

이러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원에 무역학 전공의 박사과정을 둔 대학은 박사과정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요원 후보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무역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에서의 무역학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김재식, 2012). 아울러, 이 연구의 성격상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풍부한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인 설문조사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발전대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학문후속세대’라 함은 정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무역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의미하며,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이라 함은 무역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무역학과’라 함은 국제통상학과 등과 같이 무역에 특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과를 지칭하며, ‘무역학자’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에 전공분야를 무역학으로 표시한 대학 전임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Ⅱ. 이론적 배경과 현황

### 1. 무역학 교육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반영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무역관련 학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무역학 교육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이 높았다(박병호 외, 1979). 1980년대에 한동호(1985)는 무역학과의 성격 규명과 무역학과의 교과과정을 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옥선중(1989)은 무역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학가에 학부제가 확산됨에 따라 무역관련 학과에도 구조적 변화가 많았으나(방희석, 1995), 이 시기까지도 무역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무역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예를 들면, 2000년에는 무역학회 주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무역학 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주제발표(조우길, 2000; 황중서, 2000)가 이루어 졌다. 다음해의 무역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강원진(2001), 박문서(2001) 등이 무역학 교육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2003년에 학술발표 대회에서도 무역학 교육과 관련한 주제발표(노택환, 2003)가 이어졌다.

이후 무역학 교육에 관한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교과과정(박광서·유광현, 2008)과 무역학의 학문적 정체성(라공우, 2011)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무역교육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무역교육 동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일본(김원배·유병부, 2008), 중국(강홍중·한설매, 2010), 미국(강홍중, 2011)과 비교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역교육의 방법론(이호형·김학민, 2011), 무역교육의 평가인증(정홍주, 2011) 등과 같은 분야로 관심분야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무역학보다는 경영학의 한 범주로서 국제경영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결과(Kwok, Folks, Arpan, and Jeffrey, 1994; Czinkota and Ronkainen, 1997; White and Griffith, 1998; Mohamed, 2009; Geringer and Pendergast, 2010)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학 교육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학부수준에서의 무역학 교육에 관한 것이며, 학문후속세대를 양성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 2. 학문후속세대

우리나라에서 ‘학문후속세대’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초

반부터이다. 그 시초는 1992년에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한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인데(김남두, 1992), 이를 계기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을 포괄하는 '학문후속세대'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김재식, 2012). 이후 일부 학문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관심부족을 비판하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법학교육 분야의 논의가 실무법률가 양성만 초점을 맞추어온 반면에 유능한 법학자 배출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최병조, 2006)이 있었으며, 행정학, 교육심리학(하대현, 2010), 지질학(임현수·정대교, 2014)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행정학 분야의 경우, 학문적 위기의 원인을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지원의 취약성과 이에 대한 연구 인력의 구조적 문제로 보았다(우양호·홍미영·김인, 2005). 구체적으로, 우수한 학부졸업생들이 행정학 연구자의 길을 기피함으로써 대학원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록 우수한 연구 인력이 양성된 후에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이다(우양호·홍미영·김인, 2005). 또한, 권해수(2009)는 한국 행정학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 발전이 미흡한 주요 원인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교수충원구조 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행정학계는 지나치게 미국 종속적인 학자충원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과정과 교수충원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권해수, 2009).

일반적으로 학문후속세대란 각 학문 분야에서 연구 작업을 주도할 다음 세대 인력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종사 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최병조, 2006). 이처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기능을 담당하는 박사과정 개선과 관련한 신현석(2011), 임한조(2011) 및 송창용(2009)의 선도적 연구는 무역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대학원의 질적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편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쉬운 입학기준은 국내 대학원의 수준을 낮게 평가받게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신현석, 2011). 이러한 이유로 국내박사보다는 해외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국내대학원보다는 외국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임한조, 2011).

〈표 1〉 2016년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인적특성

구분		빈도	비율	비고
전체		7,938	100.0	
성별	남성	5,199	65.5	
	여성	2,739	34.5	
직장여부	학업전념	3,817	48.6	
	직장병행	4,032	51.4	
연령	30세 미만	266	3.4	평균 40.9
	30~39세	3,937	49.6	
	40세 이상	3,731	47.0	
대학원 유형	일반	7,338	92.5	
	전문	599	7.5	
지역	수도권	4,507	56.8	
	비수도권	3,431	43.2	
전공 계열	사회	1,581	19.9	
	공학	2,490	31.4	
	기타(인문, 자연, 의약, 예술 등)	3,867	48.7	

\* 분석대상 : 2015년 8월~2016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조사 응답자(외국인 제외)  
 자료 : 유한구·김혜정(2017)

최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유한구·김혜정, 2017)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신규박사 인력의 공급과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2015년 8월~2016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조사에 응답한(외국인 제외) 신규박사는 총 7,938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남성이 65.5%, 여성이 34.5%, 평균연령은 40.9세로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여부 별로는 학업전념자가 48.6%, 직장병행자가 51.4%였다 (표 1 참조).

### 3. 무역학자 현황

무역학자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국회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DB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회전자도서관 DB를 통해서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1월말까지를 기준으로, 박사학위 논문의 전공명칭에 '무역'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를 검색한 결

과, 총 445건이 발견되었으며, ‘통상’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는 166건이었다(표 2 참조). 그리고 이들 용어가 중복 사용된(무역&통상) 경우도 5건이 있었으며, 사실상 무역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국제상학’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된 경우는 35건이 있었다. 참고로 ‘국제경영’이라는 키워드로 119건이 검색되었으나, 이 전공은 무역관련학과와 경영학과에서 동시에 학위가 수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2〉 무역학 분야의 국내박사학위 현황 (2010.01.01.~2017.01.30)

전공표시	인원	비 고
무역	445	* 무역학 407(무역상무 22, 무역경영 24, 국제무역 75, 무역실무 1 등 일부 중복)
통상	166	* 통상법 2건 포함
국제상학	35	* 참고: 국제경영 119건 미포함
합계	646	* 무역&통상 5건 중복 5건 포함

자료 :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검색시스템에서 ‘전공’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집계한 것임

다음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2010.01.01.~2016.09.14. 기준)를 기초로 무역학과(전공) 박사과정을 가지고 있는 주요 대학의 박사학위 수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59건), 중앙대(42건), 건국대(30건), 경희대(24건)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부산대(28건)와 전북대(29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학문후속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71년 이후 출생자 중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박사학위 취득 대학을 살펴보면,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가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무역학 전공 조교수의 박사학위 취득대학(1971.1.1 이후 출생자)

박사학위 취득대학교	인원	비고
성균관대학교	8	
중앙대학교	8	
부산대학교	5	
외국대학	6	영국3/중국1/일본1
기타	21	
합계	48	

기타 : 서강대학교2, 영남대학교2, 경희대1, 전북대1, 동아대1, 동국대2, 동의대1, 서울대2, 계명대1, 충남대1, 조선대1, 단국대1, 명지대1, 건국대1, 청주대2, 비공개1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7.1.25. 기준)

〈표 4〉 무역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의 직업현황(1952.1.1. 이후 출생자)

구분		인 원		비고
		전체	여성	
전임교원	교수	162	6	67.2%
	부교수	76	4	
	조교수	96	15	
	소계	334	25	
기 타	비전임교원(시간강사 등)	108	27	21.7%
	연구(위)원 등	55	2	11.1%
합 계		497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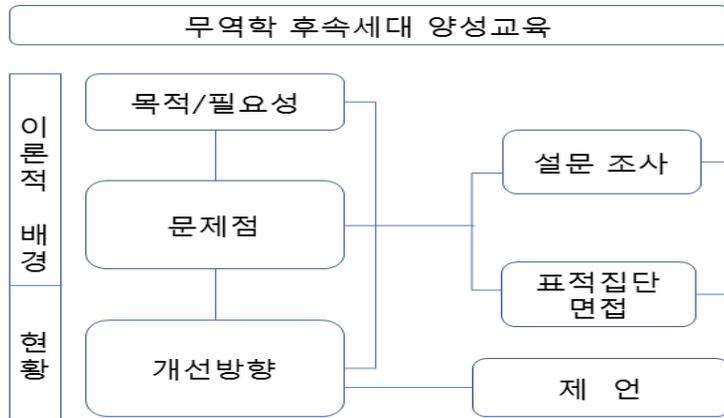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정보를 기초로 검색한 결과(2017.1.25. 기준)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정보에 전공분야를 ‘무역학’ 분야로 등록한 사람들의 직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497명 중에서 전임교원이 334명으로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전임교원과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조).

### Ⅲ. 연구모형 및 방법

이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목표, 신입 확보에서부터 교육과정의 운영, 졸업생에 대한 진로 등의 이슈에 대해에 대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무역학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어서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자료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였으며(김병섭, 2010), 연구내용의 성격상 가설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1.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위해 먼저 한국연구재단 DB를 활용해서, 전공분야의 대분류를 '무역학'으로 등록한 현직 대학 전임교원 334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다음에는,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245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시스템 상의 문제 또는 수신거부로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은 1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는 42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한 1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41명으로 응답률은 17.4%였다(표 5 참조). 일반적으로 표본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30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정상분포를 따른다(김두섭·강남준, 2000). 그러나 이 연구처럼 응답자 집단의 규모가 작은 소표본의 경우에는 t 검정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한 집단 간의 유의성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김광웅, 1984), 이 연구에서는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집단별로 비교함에 있어서 t 검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5〉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강의경력	15년 미만	14	34.1
	15년 이상	27	65.9
설립주체	국공립	8	19.5
	사립	33	80.5
박사과정 유무	있음	28	68.3
	없음	13	31.7
소재지	서울부산	11	26.8
	기타지역	30	73.2
합 계		41	100.0

## 2. 표적집단면접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병행해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전략대안 개발에 자주 활용되는 표적집단면접(FGI)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FGI 방법을 추가한 이유는, 무역학 분야의 교육에 대한 기존의 측정도구들로는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무역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FGI는 사전에 고정되어 있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하고 개방적인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Morgan and Krueger, 1998). FGI의 참여자 수는 8~12명 사이가 적절한데, 이 연구에서는 FGI에 참여하는 사람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층적 의견을 도출하였다. 우선 선정기준에서 제1집단은 이 연구의 주제인 무역학 분야의 교수 중에서 선정하고, 제2집단은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중에서 선정하였다(표 6 참조). FGI에서 구체적인 질문 주제는 대략 5~6개가 바람직한데, 이 연구를 위한 질문문항은 참여자들이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6〉 표적집단면접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신분	연령	전공
A	대학교수	52	무역통신 및 전자무역
B	대학교수	49	무역통신 및 전자무역
C	대학교수	54	무역실무 및 무역경영
D	대학교수	41	국제운송 및 물류
E	대학교수	60	무역이론
G	대학원생	35	무역학
H	대학원생	27	무역학
K	대학원생	35	무역학
M	대학원생	48	무역학
N	대학원생	31	무역학
P	대학원생	31	무역학

## IV. 연구 결과

### 1. 양성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인식

이미 서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학문후속세대’라 함은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무역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의미하며,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이라 함은 무역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교육을 의미한다.

무역학은 경제학 또는 경영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무역학 분야에 종사하는 제1세대 학문연구자의 대부분은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많은 대학의 무역학과에 박사과정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는 별개로 무역학 박사과정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필요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무역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필요성과 관련해서, ‘무역학의 정체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m) 5점 만점에 4.56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무역학 분야에 특화된 학위소지자에 대한 채용수요가 있어서 필요하다’하는 의견은 3.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면 높지 않아서, 학위취득자에 대한 채용수요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게 인

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항목 모두에 대해, 대학강의 경력이 15년 미만인 소장학자 집단과 15년 이상인 원로학자 집단 간에  $p \leq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표 7〉 무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인식

필요성과 목표	평균 (m)	강의 경력	사례수	집단 평균	t
무역학의 정체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4.56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4.71 4.48	.950
무역학 분야에 특화된 학위 소지자에 대한 채용수요가 있어서 필요하다.	3.80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3.50 3.96	-1.317
무역학 분야의 학문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4.32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4.43 4.26	.531
무역 분야의 실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4.10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4.50 3.89	2.110*

\* :  $p \leq .05$

한편, 무역학 박사과정의 목표와 관련해서, 무역학 박사과정은 ‘무역학 분야의 학문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항목에 대한 지지도 평균(m)은 4.32로 나타난데 비해, ‘무역학 분야의 실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항목에 대한 지지도 평균(m)은 4.10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항목 중에서 후자에 대해서는 대학강의 경력이 15년 미만인 소장학자 집단의 지지도(4.50)와 15년 이상인 원로학자 집단(m=3.89)의 지지도 간에는  $p \leq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110$ )를 보였다. 한편, 응답자의 강의경력 외의 기타요인(소속대학의 설립주체, 박사과정 설치유무, 소속대학이 위치한 지역) 별로 t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 무역학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FGI와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포함된 위의 항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으며, ‘무역학에는 경영, 경제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교수 E) 무역학 박사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무역학 박사과정의 교육목표와 관련해서는 ‘무역관련 경력자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대학원생 M)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저는 직장에서 55세가 지나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 제가 예전에 석사를 했던 분야의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대학원생 M)

## 2. 양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문제점 관련 항목에 대한 무역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일제 입학지원자가 부족하다’(m=4.37), ‘우수한 신입생 지원자가 부족하다’(m=4.00), ‘학위취득자 중에서 시간제 학생비율이 높다’(m=3.98)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반면에, ‘무역학 학위취득자는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자에 비해 취업에 불리하다’(m=3.37)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지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 집단 간에 각 항목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면, ‘학생들의 연구역량이 부족하다’는 항목과 ‘무역학 학위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두 항목에 모두 대해, 경력이 15년 이상인 집단과 15년 미만인 집단 간에  $p \leq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참조).

〈표 8〉 무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문제점에 대한 인식	평균 (m)	강의 경력	사례수	집단 평균	t
전일제 입학지원자가 부족 하다.	4.39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4.07 4.56	-1.748
우수한 신입생 지원자가 부족하다.	4.00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3.86 4.07	-.654
학위취득자 중에서 시간제 학생의 비율이 높다	3.98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3.71 4.11	.195
학위논문에 대한 질적관리가 부족하다.	3.90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3.64 4.04	.217
무역학 학위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3.71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3.14 4.00	-2.720**
학생들의 연구역량이 부족 하다.	3.61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3.14 3.85	-2.207*
무역학 학위 취득자는 경영/ 경제학 전공자에 비해 취업에 불리하다.	3.37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27	3.00 3.56	-1.353

\* :  $p \leq .05$     \*\*:  $p \leq .01$

응답자가 속한 대학의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전일제 입학지원자가 부족하다’(t=-3.080), ‘우수한 신입생 지원자가 부족하다’(-2.629), ‘학생들의 연구역량이 부족하다’(t=-2.398), ‘학위취득자 중에서 시간제 학생의 비율이 높다’(t=-2.2181)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만 사립대학 교수와 국공립대학 교수 간에  $p \leq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응답자가 속한 대학에 무역학 관련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정한 결과, '전일제 입학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만  $p \leq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052$ )가 있었으며, 그 외에 응답자가 속한 대학의 위치가 대도시(서울, 부산) 또는 기타 지방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각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무역학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포함된 각 항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교수들은 우수한 지원자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파트타임과 풀타임 학생이 혼합되어 있어서 강의시간 편성에 문제가 있다'(교수 B, 학생 M), '연구를 위한 교육훈련이 철저하지 못하다'(교수 C, D), '제공되는 교과과정이 다양하지 못하다'(대학원생 H), '석박사 통합 수업으로 인해서 고급과목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대학원생 G), '외국어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교수 A), '무역학 분야 학위취득자의 취업이 어렵다'(교수 D, 대학원생 K) 등과 같은 지적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른 학교 대학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내 커리큘럼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수업 듣는데 아쉬운 사항입니다."(대학원생 H).

"파트타임 학생이랑 일반 학생이랑 같이 학교생활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표 배정에 있어서 밤 시간을 많이 넣어야 할지 낮 시간을 많이 넣어야 할지, 누구에게 맞출 것인지와 같은...그리고 석사생 대비 박사과정 학생이 그다지 많지 않다보니까 박사과정 학생만을 위한 심화과목이 따로 개설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대학원생 G).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이 철저한 교육훈련을 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신입교수로 뽑기를 원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무역학과 교원공채 지원자 중에는 파트타임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교수 D).

### 3. 양성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개선방향에 관련된 항목에 대한 무역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관련 학과에서 교원 채용 시 무역학 전공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m=4.59), '무역학 학위취득자에 대한 수요기관을 확충해야 한다'(m=4.44), '전일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m=4.39),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m=4.29), '연구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학위를 수여해야 한다'(m=4.29), '학생들의 연구발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m=4.27), '전일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m=3.98) 등의 순으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강의경력을 기준으로 집단 간 비교를 해 보면, ‘전일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t=-3.032),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t=-4.965), ‘학생들의 연구발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t=-2.105), ‘전일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t=-3.573) 등과 같은 항목에서 강의경력 15년 미만인 교수집단의 지지도와 강의경력 15년 이상인 교수집단의 지지도 간에  $p \leq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05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무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한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속한 대학의 설립주체, 박사과정 설치여부 및 지역에 따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무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평균 (m)	강의 경력	사례수	집단 평균	t
무역관련 학과에서 교원 채용 시 무역학 전공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4.59	15년 미만	14	4.43	-1.081
		15년 이상	27	4.67	
무역학 학위취득자에 대한 수요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4.44	15년 미만	14	4.43	-.071
		15년 이상	27	4.44	
전일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4.39	15년 미만	14	3.93	-3.032**
		15년 이상	27	4.63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29	15년 미만	14	3.50	-4.965**
		15년 이상	27	4.70	
연구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학위를 수여해야 한다.	4.29	15년 미만	14	4.00	-1.951
		15년 이상	27	4.44	
학생들의 연구발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27	15년 미만	14	3.93	-2.105*
		15년 이상	27	4.44	
전일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3.98	15년 미만	14	3.36	-3.573**
		15년 이상	27	4.30	

\* :  $p \leq .05$       \*\*:  $p \leq .01$

또한,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무역학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포함된 각 항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대학원생들은 연구방법과 통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을 보였다. 그리고, ‘무역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서 전일제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교수 A, 대학원생 K), ‘신입생 선발 시에 외국어 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

다(교수 A), ‘교수연구에 참여해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대학원생 N) 등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코스웍에 연구방법론과 통계 과목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교수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방법이나 통계는 주로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대학원생 N).

## 4. 무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에 대한 제언

### 1) 지원자 유치 측면

무역학을 포함한 각 학문 분야에서 제대로 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학위과정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우수한 전일제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중에서 직장 병행자 비율이 높고 학위 취득자 평균연령도 40.9세로 고령화하고 있어서 연구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유한구·김혜정, 2017).

이 연구에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일제 입학지원자가 부족하다’(m=4.39)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우수한 지원자가 부족하다’(m=4.00)는 평가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일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강의경력이 15년 이상이 교수들(m=4.30)이 15년 미만인 교수들(m=3.3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무역학 분야에 한정된 연구는 아니지만, 신현석(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대학원의 질적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전일제 지원자가 부족하다보니까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파트타임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서 국내 대학원의 수준이 낮게 평가받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수 대학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우수한 전일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일제 학생인지 여부는 대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별하며, 이들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학 특정학과에서는 전일제 학업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대학원 지원 자격을 주거나, 아카데미 트랙(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과 프로페서

널 트랙(박사) 과정을 구분해서 직장에 재직 중인 파트타임 지원자는 프로페셔널 트랙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무역학 분야도 각 대학들은 ‘무역학 분야의 학문연구자 양성’까지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역 분야의 현장전문가 재교육’을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교수 E).

“졸업생에 대한 채용수요가 없는 위치의 대학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에 취업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 없는데 학자양성이 주목적인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좀 .....”(교수 E)

전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소수의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다른 대학의 교수요원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역학 분야의 경우, 수도권권의 2~3개 대학, 지방권의 1~2개 대학 정도가 이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2) 경제적 지원 측면

우리나라 대학원생이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이나 연구 과제 수행 상의 어려움 등이다. 이인규(2015)의 조사에 의하면, 박사과정 학생의 등록금 수준은 400~5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한 학기에 필요한 생활비는 200~3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대학원생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장학금, 조교수입, 가족의 지원, 프로젝트 참여,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 등이다.

우리나라 대학원생과 교수들은 박사학위 과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이며, 다음은 ‘대학당국의 지원확대’라고 인식하고 있다(신현석, 2011). 대학원생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비싼 학비와 생활비이며,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다보니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인규, 2015).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박사과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신현석, 2011). 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해 학비와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우수한 신입학 지원자를 유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 우수한 학생은 재정적 지원조건이 더 좋은 대학을 찾아서 외국유학을 떠나거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학 분야의 경우도 국내 대학원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대학원생 G).

“풀타임이라 따로 수입이 없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지만, 나머지 학비와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대학원생 G)

이 연구결과에서도 ‘전일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m=4.39)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하는 소수의 대학만이라도 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갖춘 후, 그러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소수정예주의로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교육과 훈련 측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전일제 신입제 지원자를 확보한 다음에 할 일은 이들을 제대된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국가인원위원회(이인규, 2015)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생이 교수로부터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공정한 논문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학습권 침해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무역학 분야의 경우,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교과과정과 연구기법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대학원생 K).

“커리큘럼이 풍성하게 제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파트타임이라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 딜레마이긴 하지만... 파트타임이다 보니 수업이야 어떻게 시간을 맞출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박사논문인데 수업과정에서 논문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논문스킬이 쌓여 가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대학원생 K).

무역학 분야의 경우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m=4.29)하고 ‘학생들의 연구발표 기회를 확대’(m=4.27)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부 대학원에서는 졸업자격요건으로 국내전문학술지 이상 수준의 저널에 논문발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학술지의 종류를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위취득자 중에서 시간제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m=3.98)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파트타임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입학한지 불과 2~3년 만에 학위를 수여받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일제 학생에 비해 부족한 학습시간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육훈련 기간을 거쳐서 '연구역량이 충분히 확인된 후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학위를 수여'(m=4.29)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역학 분야의 신규박사에 대한 양적 공급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므로, 채용수요자가 기대하는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박사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4) 취업기회 측면

한국직업능력개발의 조사(유한구·김혜정, 2017)에 의하면, 직장 병행자를 포함한 전체 2016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률은 75%였으나 순수하게 학업만으로 학위를 딴 학업전념자의 고용률은 60.6%로 정도였으며, 학업전념자의 54.3%는 상용직, 43.7%는 임시직에 취업되었으며, 나머지 1.9%는 자영업 종사자였다. 학업전념자의 평균임금은 3,822만원이었으며, 정규직은 5,692만원, 비정규직은 2,565만원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670만원으로 남성(4,334만2천원)의 61.6% 수준이었고, 전공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4,836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이 1,60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유한구·김혜정, 2017).

〈표 10〉 무역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정년트랙) 채용동향

대학	학과	전공	특별 부가(우대) 조건
호서대	글로벌통상학과	무역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무역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실무경력 5년 이상</li> <li>관세사자격증 소지자</li> </ul>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국제상학(무역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상학(무역실무)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li> </ul>
전북대	무역학과	무역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강의 가능자</li> <li>연구실적 우수자 특채</li> </ul>
경남과기대	글로벌무역통상학과	무역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학전공자(무역실무 분야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li> </ul>
조선대	무역학과	무역상무(무역결제와 신용장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가 무역학과 또는 무역학과와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자</li> <li>무역결제와 신용장론 강의 가능자</li> <li>영어강의 가능자 우대</li> </ul>
경희대	무역학과	경영학(국제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강의 가능자</li> </ul>
동의대	무역학과	무역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강의 가능자</li> </ul>
제주대	무역학과	무역법규 및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실무 전공자로 중국어 강의 가능자</li> </ul>

자료 : 하이브레인넷에 탑재된 과거 1년간 교수채용공고 검색결과(2016.3~2017.3)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이인규, 2015)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주요 목적은 전문직 취업, 학문적 관심과 자아실현, 대학사회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입직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 박사과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못지않게 학문적 성취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신현석, 2011). 실제로 무역학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도 장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대학원생 K, M).

“예전에 무역학과는 교수도 많았고 학생도 많았는데, 지금은 학부에서 많이 없어지고 교수님도 소수만 남고 보충도 안하는 것 같아서, 무역학을 전공해도 이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대학원생 M).

“제가 직장을 가지고 박사를 하는 이유는 오래가고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준비 차원인데, 졸업 후에 학위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은 없습니다.”(대학원생 K).

따라서 무역학 분야의 경우, ‘무역관련 학과에서 교원 채용 시 무역학 전공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으며’(m=4.59), ‘무역학 학위취득자에 대한 수요기관을 확충할 필요’(m=4.44)가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교원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무역학 관련 전임초빙공고를 낸 15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초빙공고를 냈으며, 이들 중 상당수 대학들이 무역학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표 10 참조). 예를 들면, 조선대는 학부부터 무역학 전공자를 우대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호서대는 관세무역을 전공한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또한 강남대, 제주대, 경남과학기술대 등도 사실상 무역학 전공자를 우대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무역관련 학과 명칭이나 전공명칭이 아직도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역학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 V. 결론

우리 대학 사회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해외대학에 의존하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으나, 이공계와 달리 적어도 인문사회계는 우리 스스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김남국, 2011). 특히,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 무역학 분야는 더욱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무역학 분야의 경우,

그동안 무역학 교육 연구는 주로 학부의 교과과정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무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에서의 무역학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우수한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 입학생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선발된 전일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역량과 외국어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확보된 전일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공 및 연구방법론 관련 교과목 이수,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 국내외 학술세미나 발표, 철저한 논문 심사과정 등을 거쳐서 학문후속세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만 학위를 수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장을 가진 파트타임 학생의 선발, 교육 및 학위취득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적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교원이나 전문연구직을 목표로 전일제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무역관련 학과에서 채용 시 우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결과가 각 대학들에서 무역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무역학 교육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원진(2001), “무역결제 교육 :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무역학회 2001년도 하계정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6, pp.233-253.
- 강홍중·한설매(2010), “중국대학의 무역교육현황과 무역교육평가,” 「한국무역학회 2010 국제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2010.12, pp.243-256.
- 강홍중(2011), “미국대학의 무역교육 현황과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 발표대회 및 정책세미나」, 2011.4, pp.107-122.
- 김광웅(1984),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박영사, p.426.

- 김남국(2011), 한국의 대학원 정치학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한국정치연구」, 제 20집 제2호, pp.181-208.
- 김남두(1992),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의 기본방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 1992.
- 김두섭·강남준(2000), 「회귀분석」, 나남출판, p.26, 83.
- 김병섭(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법문사, p.558.
- 김원배·유병부(2006), “국제상학적 관점에서의 한국과 일본 무역학교육의 비교분석,”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pp.3-22.
- 김재식(1996), “무역학 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분석,” 「무역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99-224.
- \_\_\_\_\_(2012), “무역학 교육을 위한 대학교원 구인동향과 후속세대의 양성,” 「무역학회지」, 제37권 제5호, pp.1-27.
- 권해수(2009), “한국 행정학의 학문후속세대 교육의 위기구조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1호, pp.299-320.
- 노택환(2003), “무역학·국제통상학의 학문적 범위와 특성 및 교육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무역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3. 5, pp.665-705.
- 라공우(2011), “무역학교육과정과 학문분류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pp.249-273.
- 박광서·유광현(2008),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 박문서(2001), “서비스무역,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한국무역학회 2001년도 하계정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6, pp.265-271.
- 박병호 외(1979), “전국 대학 무역학과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의 설정연구,” 「한국외대 무역논총」, 제8집.
- 방희석(1995), “무역학과 교과과정의 방향,” 「한국무역학회 1995년 정례 학술발표논문집」, pp.217-227. pp.329-360.
- 송창용(2009), 「국내박사인력의 양성과 활용 실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현석(2011),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옥선중(1989), 「대학 무역학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육협의회.
- 우양호·홍미영·김인(2005), “행정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pp.553-581.
- 유한구·김혜정(2017), “국내 신규 박사인력 노동시장 이행실태,” 「The HRD Review」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년 1월호(통권90호), pp.122-135.
- 이인규(2015),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이호형·김학민(2010), “전자무역 시뮬레이션 교육의 학습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pp.109-132.
- 임한조(2011),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제고 및 세계수준의 국내박사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2011-016).
- 임현수·정대교(2014), “지질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86.
- 정홍주(2011), “대학의 무역교육 평가·인증체제 고찰,” 「무역학회지」, 36권 제3호, pp.221-243.
- 조우길(2000), “신 국제통상시대의 무역이론 교육,” 「무역학회지」, 제25권 제2호, pp.1-25.
- 최병조(2006),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99-126.
- 하대현(2010), “교육심리학의 전문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1호, pp.207-233.
- 한동호(1985), “한국무역학회 무역학과의 성격과 교과과정 정립을 위한 일고찰,” 「무역학회지」, 1985.12, pp.1-48.
- 황중서(2000), “무역학의 새로운 수업방법에 관한 제안,” 「한국무역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4, pp.459-470.
- Czinkota, Michael R. and Ronkainen, Ilkka A.(1997),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in the Next Decade: Report from a Delphi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ourth Quarter, Vol.28 No.4, p. 827.
- Geringer, J. Michael and Pendergast, William R.(2010), “CEO Views on the Value of International Business Skills and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Vol.1 No.1, pp.12-29.
- Chuck C. Y., Kwok, J. A. and William, R. Folks Jr.(1994), “A Global Survey of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in the 1990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5 No.3, p. 605.
- Mohamed Ehab K. A.(2009), “Optimizing Business Education: A Strategic Response to Global Challenges,” *Education, Business and Society: Contemporary Middle Eastern Issues*, Vol.2 No.4, pp.299-311.
- Morgan, D. L. and Krueger, R. A. (1998),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Vol.6, Sage.

White, D. S. and Griffith, D. A.(1998), "Graduate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Comparisons and Suggestion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74 No.2, pp.103-115.

## A Study on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for the Academia of International Trade

Jai-Sik Kim

---

• Abstract •

Quantitatively, there are no problem regarding new doctoral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but the quality of the degrees does not meet the level of academic potential expected by recrui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problems of doctoral education to cultivate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doctoral programs through surveys and focused group. Results of this studies show that the major issues are a lack of full-time applicants and a demand for doctoral degree holders, and poor coursework. For doctoral education programs to successfully cultivate next generation academician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imperative for graduate schools to recruit distinguished full-time students. For this purpose, graduate schools must offer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packages as well as provide their students with good coursework and rigorous procedures on defending their dissertation. In addition, some graduate schools that mainly admit part-time students need to focus more on the quality of their doctoral degrees. Finally, preferential treatment of recruitment procedures might be helpful in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ew doctoral degree holders in international trade.

---

<Key Words> Doctoral Courses,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Trade Education, Next Generation for Academia